

6. 셈의 혈통 (11:10-26)

☞ 창세기 5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

1. 아담 - 노아 - 데라(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일관성과 진전.
-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브라함을 통해 유지될 것.
* 아브라함은 셈에서 10대, 아담에서 20대: 셈이 홍수 이전 세대의 중심점.
* 아브라함은 에벨에게서 7대, 에벨은 아담에게서 14대(7X14)
2. 같은 어휘와 문학 패턴을 사용: ‘자녀’, ‘낳고’, 각 세대마다 한 후손만 나오고 세 아들의 이름으로 끝남.
3. 창세기 11장에는 ‘죽었다’가 없음: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인내와 아브라함으로 인해 도래될 낙관적인 미래를 반영.

☞ 벨렉의 계보

1. 바벨 이전에 기술된 욥단을 삭제함으로 욥단 계보는 바벨의 실패로 이어지는 반면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귀결.
2. 바벨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 헛된 노력을 쏟았지만 하나님은 셈의 후손 아브람에게 이름(셈)을 주심.
3. ‘데라는... 죽었더라’: 태고의 역사를 데라로 끝내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족장 시대로 전환됨을 의미.

(1) “홍수 이후”의 셈 (11:10-11)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1:10/ ‘홍수 후 이년’: 셈이 102세 때. * 연대 문제- 5장에 의하면 홍수 때에 셈은 100세.
- 11: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 홍수 이후에 급격히 줄어드는 족장들의 수명 - 6:3의 성취.
*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인이며 셈과 에벨은 아곱 때까지 생존.

(2) 셈의 아들들 (11:12-26)

1) 아르박삿에서 에벨까지(11:12-17)

12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13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1:12-13/ ‘아르박삿’: 10장에서 아르박삿은 장소, 지파의 명칭이었으나 여기에서는 사람의 이름.
- 11:14-17/ ‘에벨’: 히브리인의 조상(가능성). 아담에서 14대에 이르는 중요한 위치를 점함.

2) 벨렉에서 나홀까지(11:18-25)

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23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25 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1:18-19/ '벨렉': * 두 분과 사이의 출발점. 욥단은 아라비아 지파들의 선조이며 벨렉은 북서메소포타미아 가문의 선조.
 * 벨렉은 셈 계보의 중간(5)을 차지. 확산은 셈과 아브라함 시대 중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갑자기 줄어든 수명(239)은 바벨의 죄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음.
- 11:20-25/ '나홀': *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같은 이름의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음(27절).
 * 아버지 스룩(230)이나 아들 데라(205)보다 수명이 짧음(138).
 * 리브가(이삭의 아내)는 나홀성 출신이며 나홀의 손녀(22:23).
 '데라': *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 이스라엘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 늦은 나이(70세)에 아들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사라 가문을 괴롭히는 전조가 됨.
 * 여호수아 24:2에서 데라 가문이 다신론적인 삶을 살았음을 밝힘.

3) 데라의 아들들(11:26)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 11:26/ '... 낳았더라': 세 아들의 번식으로 마무리. 하나님의 강복 약속에 저자의 관심이 있음을 드러냄.
 '아브람': 첫째인지는 불분명. '아버지(아브)'와 '높여짐(람)'의 합성어 -> '아브(아버지)'와 '라함(많은)'.
 '나홀': 아브라함의 조카인 열두 아들의 아버지(22:20-24).
 '하란': * 지명 '하란'과 혼동 주의.
 * 롯의 아버지. 하란의 딸 밀가는 나홀과 결혼하여 브두엘을 낳고 브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음.

7. 조상 아브라함 (11:27-25:11)

(1) 아브람의 출발(11:27-32)

1) 서론: 데라(11:27a)

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 11:27: '데라의 족보':
 * 창세기의 일곱 번째 단원을 시작하여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전환을 이룸.
 * 창세기의 열한 개의 '톨르돗(족보)' 머리글 중 여섯 번째로써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의 중심으로 만들.

2) 데라의 가족(11:27b-30)

27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 11:27b-28/ '데라': 70세에 아버지가 되었음.
 - '나홀': 밀가에게서 여덟 아들을, 첩 르우마에게서 네 아들을 낳음.
 - '하란': 롯, 밀가, 이스마를 낳음. 롯은 이 시점에서 유일한 남성 후손.
 - '하란은 죽었으며': 아브라함이 롯과 동행하게 되는 원인.
 - '갈대아인의 우르': 하란의 고향.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행 7:2-3).
 - '갈대아인': 남부 바벨론 갈대아지역. 서부 셈족 혈통. 나홀의 손자 '아람', 나홀의 아들 '게셋'과 관련.
 - '우르': * 고대 수메르의 도시. 3천년기 후반 동안 고대 근동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 수행.
 - * 우르와 하란 모두 달의 신을 섬겼으며 아브람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중 하나였을 것.
- 11:29-30/ '사래, 밀가': * 당시 성행했던 족장 간 동족혼 (사래는 아브람의 이복누이).
 -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사래는 그 시작도 없을뿐더러 자녀를 통해 대를 잇지도 못함
 - 복의 사슬에서 약한 고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함.

3) 데라의 삶과 죽음(11:31-32)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 11:31-32/ '하란에... 거류하였으며':
 - * 데라가 하란에 거주한 이유는 불분명. 원래 그곳이 그들의 고향일 가능성.
 - * 바벨 기사와 맥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지 않았음을 암시
 - 아브라함의 순종과 대조
 - '롯': 소돔 이후에 분리된 아브라함과 관계가 보아스와 롯의 결합으로 복구.
 - * 나홀과 밀가도 이주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추측- 리브가, 레아, 라헬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음.
 - '데라가... 데리고': 아브라함을 '취한' 것은 데라였으나 이들의 이주 계획을 촉발한 것은 하나님 (행 7:4).
 - '이백오 세가 되어... 죽었더라': 데라는 60년을 더 생존했지만 사망 기사로써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림.

(2) 약속의 부르심과 아브람의 순종(12:1-9)

1) 명령과 맹세(12:1-3)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12:1/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르에서부터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감독하심.
 -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 * 데라 일족의 고향이 하란일 가능성이 있음-이동이 잦은 유목민의 특성을 고려.
 - * 거주지와 친척과 데라의 가정과의 결별을 요구하심 - 가장 강한 가족 결속을 끊음.
 - * 사회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 '땅으로 가라': 아브람이 하란에 머물렀을 때보다 더 큰 보상을 약속하심.
- 12:2/ '내가...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수신자.
 - '민족을 이루고': * 부와 명성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 후손은 혼자 힘으로 실현 불가능.
 - * 상속자를 얻으려는 시도가 허사로 돌아감으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됨.
 - * 약속이 주어진 당시에는 사래의 임신이 보장되지 않지만 점차 분명해짐.
 - * 약속의 상속자 이삭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도 아브람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됨.
 - * 이 언약은 야곱에게로 계승되며,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성취(신 26:5).
 - * 모세는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국가(민족)로서 아브라함의 중재적 역할(18:23-32; 20:17)을 실현
 - (출 32:12-14; 민 14:15-20; 신 9:19-20, 25-29).
 - '네게 복을 주어': * 창세기에서의 복은 '자손'과 '물질적 풍요'를 의미.
 - * 아브람은 바로에게 많은 가축을 얻었고 사병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지역 족장과 조약을 맺음.
 - * 이삭도 블레셋인의 시기를 받았고(26:12-15, 28-29), 야곱 또한 라반으로부터 큰 재산을 모음.

‘네 이름을 창대하게’:

- * 세대를 초월하는 영향력을 약속하심.
- * ‘이름’은 바벨 이야기를 떠올리게 함: ‘우리 이름을 내자’
- ‘셈’의 계보에서 나온 아브람의 이름을 크게 하심으로 위법적으로 명성을 얻으려던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
- * 이 약속의 1차적 성취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많은 민족의 아버지)’으로 바꿔주심.
- 그 다음으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를 영적인 시조로 여기는 것으로 성취.
- *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언어를 공유(삼사 7:9)함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왕국의 영광을 암시.
- 구세주 메시야의 도래에 대한 소망.

‘복이 될지라’:

- * 약속의 초점을 개인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에서 아브람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족속으로 전환.
- *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3절에서 분명해짐.

- 12:3/ ‘축복, 저주’: 창세기의 중심 사상. 바로와 아비멜렉, 라반, 보디발과 바로의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 * 아브람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 독점적인 주장을 하지 않음.
- 하나님이 아브람과 아브람의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짐.
- * 아브람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담는 수단.
- *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시는 이 약속을 반복하고 이 약속을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에 적용
- 출 3:6-9; 14:17; 6:2-8.
- * 시편: 회복된 이스라엘에 임하는 복은 모든 나라에 구원을 가져옴(시 67; 98).
- 다윗의 후손은 주님의 모든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 수단이 됨(시 72:17; 사 11:10-12; 55:3-5).
- *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을 얻게 하시는 구세주로 믿음(벧 22:18, 24:4, 행 3:25-26).
- ‘네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의 근원으로 이해.
- * 바울: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이방인에게 적용(갈 3:28)
- 교회를 아브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수신자로 여겼는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로.
- 롬 1:16; 2:9-10.

2) 아브람의 순종(12:4-9)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 12:4-5/ ‘이에… 따라갔고’: 아브람의 순종적인 믿음의 첫 출발.
-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극복해야 하는 주요 장애- 후손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25년을 더 기다려야 함.
- ‘가나안 땅’: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지만 아브람은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기대.
- 12:6-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아브람의 순종 행위를 인정하심.
- ‘세겜, 제단을 쌓고’: 아브람이 가나안에 처음 머문 곳이며 최초의 제단을 쌓은 곳.
- ‘주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 중요한 약속(자녀, 땅)을 반복하여 약속하심으로 아브람을 안심 시키심.
- 12:8-9/ ‘벧엘, 아이, 네게브(남방)’: 아브람의 여정: 야곱과 이스라엘도 같은 지역에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
- ‘세겜’: 후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중심지- 야곱, 요셉과의 관계. 여호수아가 기념 석비를 세움.
- ‘벧엘’: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지남. 하나님은 벧엘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심.
- ‘네게브’: 아브람과 이삭이 잠시 머문 곳. 광야 세대가 징벌을 받은 장소.